

책, 혹은 현대의 헤르메스

유일상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

책에는 열이 있다, 한이 있다, 힘이 있다. 그 열은 역사의 것이요, 그 한은 민중의 것이며, 그 힘은 사회의 것이다. 책에는 길이 있다, 덕이 있다, 밥이 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그 덕은 사람의 덕이며, 그 밥은 지혜의 밥이다. 그래서 책은 예나 지금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그리고 굳센 팔뚝을 세대 너머로 계승·발전시킨 무서운 마법의 상자요, 고마운 문명의 표징으로 존재한다.

책이 없다면 어떻게 좋은 정보가 축적될 수 있겠으며, 밝은 사상이 전파될 수 있겠는가? 또 책이라는 도구없이 효율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통치가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오늘날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명발달의 척도요, 사회공공의 재산으로서 존귀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면 교만해지고 혼잡해지고 더러워져서 진리와 선의와 아름다움을 비틀고, 흠집내고, 오염시키는가보다. 책의 眞價가 거론되는 시기에 이제 책은 천사와 악마의 손아귀를 자유자재로 움켜잡을 수 있는 헤르메스(Hermes)가 되었다. 헤르메스는 상업의 신이요, 변론의 신이며 동시에 발명의 신이요 여행의 신이기도 하다. 현대의 헤르메스 '책'은 인제 돈벌이를 쫓아 재벌의 품도 마다 않고 동침하며 온갖 雜說로 수다를 떨기에 이력이 붙었고 세속의 권력과 어울어져 천문 세가의 異說과 궤변도 스스럼없이 대변하기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헤르메스는 그렇게 파멸의 나락으로 악마와 함께 추락하는 무지막지한 멧덩구리는 아니다. 그는 다시 세상의 주인 '인간'들의 예지를 읽고 소스라쳐 자신의 잊었던 본분에 되돌아와 물질과 문명에 짓눌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우리들을 다시금 깨우친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잠들려는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우리들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세계의 운명과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는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인간아! 인간아!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찾아야 할 보물이 있다"고 속삭인다.

현대의 헤르메스는 우리를 이끌고 무궁무진한 진리의 세계로 한걸음 한걸음씩 안내하는 동반자다. 그는 진실과 정의 앞에서 연약함과 두려움을 드러낼 우리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무지와 탐욕을 절제하고, 용기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발걸음 앞에 촛불을 밝히고 징검다리를 놓는다.

헤르메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 그의 자유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고, 그것을 더 멀리, 더 오래 파동치게 하여 어둠의 시대를 불사르게 하고, 거짓의 왕국을 짓부술 수 있으며, 산 자의 가슴속에 그의 말을 영원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지금 독점자본가와 지배권력자들의 족쇄에 묶여 자유의 眞正性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독자의 수중에 들어가 읽히고 기억되어 사회화될 때까지 술한 분업과정에서 우리는 조각조각 찢어지고 잘게 부서진 파편들만 보느라 책속에 들어있고, '책밖에서 움직이는 손의 활동을 보지 못해왔다. 책을 만드는 산업을 도서출판업이라고 부른다는 것쯤은 모두의 상식이지만 도서출판업이 지닌 문화활동적 측면과 영업적 측면을 몽땅그려 전체적으로 보기에 우리의 시선이 혼란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책의 열, 책의 한, 책의 힘은 책을 財富의 축적에 급급한 출판사업가와 그들을 지켜주는 위선적인 권력의 발굽 아래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이주 현실적인 말로 돌아가 보자. 이제 한국의 문화산업시장은 출판을 비롯하여 어쩔 수 없는 개방의 문턱에 서 있다. 출판문화정책은 이제 외세를 대변할 것인가 민족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을 맞았다. 심오한 정신문화와 고도의 기술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저술가를 육성하는 문제, 개별적인 상업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일할 출판업자를 키우는 문제, 그리고 출판당국 스스로가 진리를 독점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갖추는 문제에 대해 저자·출판업자·관계당국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를 놓치지 말자.

뉴스 2 전국규모 독서실태조사 본격착수·외

연중기획 4 남도의 숨결 정겨운 고산시가의 산실
책의 해에 찾아간 책의 명소 ④ - 윤선도 고택과 보길도

초점 6 우리식 잣대로 우리식 이론 정립한다
한국적인 것 모색 위한 학문적 독립선언 주목 끌어

서평 8 박재창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안문석
김석준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황한식
9 존스 「유럽문명의 신화」— 김승옥 김승옥
레지스 「아인슈타인방의 사람들」— 이필렬
10 페터 지 마 「문예미학」 페터 지 마 「문예미학」— 김주연
김종건 「조이스문학의 이해」— 전은경
11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홍정선
12 구효서 「확성기가 있었고…」— 손경목
한정희 「불타는 폐선」— 김경수
13 이진우 「오감도」— 박해현

출판화제 14 사정바람속 재조명되는 청빈의 사상
「청백리열전」 등 관련도서 출간 잇달아

15 본격 전기물 출간 활기 띠다
역사인물소설 퇴조와 맞물려 이체

16 책으로 되살리는 놀이문화의 옛 전통
공동체적 삶 지향하는 전통놀이 다양하게 소개

화제의 책 17 과학엘리트집단의 삶과 사랑과 우정
'카이트' 관련도서 세권 잇달아 선보여

쟁점 18 판본경쟁 화제 모으는 천일의 아화
「아라비안나이트」 중보출판 시비 휘말려

이 책 그 사람 20 「태양을 화장하고」 낸 이추림씨
「영원한 제국」 낸 이인화씨
21 「최진실 신드롬」 낸 마정미씨
「압구정등엔 무지개…」 낸 이순원씨

에세이 22 겨우 존재하는 것들을 찾고 밝히기 위해 — 김제완
나를 과학의 길로 이끈 어릴적 몇권의 책들

세계의 책 24 동서냉전시대 '스파이 교환'의 진상 — 배병삼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안내